



# 네임상황

2023 SPRING vol.27

### Hot 人

삶의 터전인 이곳 궁평항에서  
책임감 하나로 구조활동을 이어온  
신상운 궁평구조대장의 이야기

### 안전을 부탁해

하늘 위의 산업혁명,  
드론의 대중화

### 환경을 부탁해

쓰레기 분리수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잘못된 재활용 분리수거 상식





주식회사 **코르웰**  
KORWELL CORPORATION

東一造船株式會社  
DONGIL SHIPYARD CO., LTD.

(주)코마린기자재  
KOMARINE MATERIALS CO., LTD.

會長 金 成 泰

船舶修理 • 船舶新造 • 海上貨物運送 • 海運代理店 • 船舶給油 • 水産物輸出入  
Shiprepairing    Shipbuilding    Marine Transportation    Shipping Agent    Bunker Supply    Marine Products Export/Import

TEL.(051)200-1111 / FAX. (051)200-1188 / E-mail. kwagent@korwell.co.kr / <http://www.korwell.co.kr>  
TEL.(051)200-1211 / FAX. (051)200-1288 / E-mail. dongil@disyard.co.kr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SА KOREA MAGAZINE

2023 4  
제27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김성태  
발행일 2023년 4월 13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714-3695  
FAX. 051)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해관 최수남(海觀 崔守南)선생의 작품으로 '넙실대는 파도를 역동적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바다를 통해 치유 받는 마음'을

## CONTENTS

<b>Special Theme</b>	
04 기고문	한국해양구조협회 이강덕 사무총장
<b>MARSА News</b>	
06 본부 뉴스	1)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08	2) 「제21차 이사회」 개최
09	3) 「2023년 정기총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11	4) 「2023년 강사워크숍」 개최
<b>지부·지역대 뉴스</b>	
12	1) 통영구조대, 제17·18대 대장 이·취임식
13	2) 경남동부지부, 마산수색구조대 발대식
14	3) 경기충남북부지부, 평택해양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15	4) 경북특수구조대, 2023년 활동을 알리는 「바다 안전 개해제」 개최
16	5) 통영구조대, 「우리 모두 다함께 海 치워요」
17	6) 전남동부지부, 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
18	7) 경남서부지부, 「해양구조인의 밤」 개최
19	8) 전국 구조·구난소식
<b>MARSА Story</b>	
21 Hot 人	삶의 터전인 이곳 공평항에서 책임감 하나로 구조활동을 이어온 신상운 공평구조대장의 이야기
25 안전을 부탁海	하늘 위의 산업혁명, 드론의 대중화
28 환경을 부탁海	쓰레기 분리수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잘못된 재활용 분리수거 상식
<b>MARSА Info</b>	
31 해양경찰소식	1) 「출항 전 보트 미리 점검하세요」 해양경찰청,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32	2) 방문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신청 가능해져
33	3) 해양오염사고 205건 발생, 오염물질 314.4㎏ 유출
34	4)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하세요!
<b>국내뉴스</b>	
35	1)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36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37	3) 바다에 어구보증금제 도입 첫 걸음!
38	4)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39	5) 원양 항해 중 아플 땀 언제, 어디서나 해양원격의료로
40	6) 2022년 해양사고는 소폭 증가, 인명피해는 감소
41	7) 한·중 국제여객선 3년 2개월 만에 여객운송 정상화
<b>MARSА Notice</b>	
42 협회교육안내	1) 2023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43	2) 2023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44	3) 2023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45	4) 2023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46 협회후원안내	

## 기고문

# 한국해양구조협회, 그 10년의 기억

한국해양구조협회  
사무총장 이강덕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2011년 12월 30일 『수난구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출발의 기치는 미국의 USCG. Aux., 영국의 RNLI, 일본의 수난구제회와 같은 해양경찰의 민간보조세력으로 민간해양구조, 해양안전예방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후, 협회 설립을 위해 2012년 3월 15일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7차에 걸친 준비위원회를 거쳐, 2012년 12월 17일 창립 발기인 대회 후, 드디어 2013년 1월 23일 인천광역시 송도동 컨벤시아에서 초대 신정택 회장을 주축으로 '수상안전 확보 및 구조지원, 해양환경 보전, 봉사문화 확산'이라는 사명(Mission)아래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창립 당시 주요 임무로는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구난 업무지원,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해양사고 예방·대응, 해양환경 보전, 해양안전을 위한 민간해양구조대 운영·관리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해양안전, 인명구조, 구조잠수, 수상구조사, 구난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 등이었다.

하부조직으로는 속초해양경찰서를 관할로 하는 강원북부지부에서 부터 인천해양경찰서를 관할로 하는 인천지부까지 총 16개 지부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3개 지부가 추가되어 19개 지부에 이르고 있다.

이후 2013년 10월 18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미래발전을 목적으로 '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해양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9명(위원장 윤종휘, 부위원장 조명래, 위원 김운상, 김종창, 최혁진, 김삼열, 김태곤, 이성진, 박종철)의 위원들이 2014년 3월 20일까지 협회의 재정확보 방안, 「수난구조법」 개정안 제안 등으로 눈부신 활동을 이어주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던 협회는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유착’, ‘해피아’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들로 질타를 받았으나, 관련수사, 국정조사 등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상황하에서도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 부터 정부 최종 수색종료일인 2014년 11월 10일 까지 209일 동안 현장에서 인명구조·수색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였다.

2016년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어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면서, 해양경찰청에 본회를 두고 있던 협회는 본회 이전지를 물색하던 중 부산광역시로 이전 결정하고, 현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접실습실을 빌려 본회의 등지를 틀고 그 명맥만을 유지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제 협회는 미래로 달려가야 한다. 민간해양구조 부문에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회의 역량 강화는 물론, 그간 정부의 형식적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국가의 지원형 + 민간자율형’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2022년 11월 16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23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같은 해 4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표발의자 두 분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조직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에 비추어 타 유사기관에 걸맞은 지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께서도 축사를 통해 그간 민간해양구조의 헌신에 대해 법률제정을 통한 국가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도 해상에서의 민간해양구조는 그 업무강도가 육상과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간 10년간 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이 민간해양구조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협회의 주요업무로 ‘수색구조·구난업무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8호에서는 ‘수색구조·구난업무를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협회 정관 제4조(사업) 제3호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는 민간해양구조대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법령제정 등 업무수행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해양에서의 구조·구난은 국가의 활동으로만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보듯, 민간해양구조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민간해양구조대 관리·운영, 그간 10년간 민간자율형으로 봉사한 만큼 이제 해양안전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 단체기념 사진

지난 4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 우리협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본회에서는 김성태 회장, 이강덕 사무총장이 참석하였고 전국적으로 인천지부, 경기충남북부지부, 충청북부지부, 전남동부지부, 경남동부지부, 경북지부 등 각 지부 협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구조안전국장·과장 등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은 해상구조 분야의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진행되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바다 봉사자들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론에는 국승기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방호삼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가 ‘민간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또한,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 여성수 해경청 구조안전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태곤 협회장은 “해양구조의 특성상 선박과 스쿠버 장비 등 고가의 구조장비가 필요하여 육상에 비해 소요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도 너무도 당연하게 자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반바지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 2021년 10월 20일경 독도 주변 해역에서 어선(11일진호)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가장 가까워서 조업하던 올진 선적 태건호가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서 생존자 2명을 구조했지만 구조과정에서 선박 훗줄이 터져 선장은 코뼈, 광대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본회에서 위로금, 표창장 그나마 해경으로부터 바다의인상을 수상하였지만 후유장애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를 개선해 달라”고 국회 및 관계기관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협회는 해양수색구조에 총 1,300여명을 투입하였고, 여름철 하계인명구조관리에 총 7천여 명이 활동하였다. 또한,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위해 전국 항포구 수중 및 수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인원 역시 4천여 명에 달한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바다 봉사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 혜택, 피복 지원, 교육 등 최소한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구조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정책토론회



▲ 발언하는 김태곤 경북지부 협회장

## 「제21차 이사회」 개최



▲ 제21차 이사회

지난 2월 21일 우리협회는 부산 영도구 목장원에서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재적 44명 중 33명이 (참석 14, 위임 19) 출석하였으며, 주요안건으로는 ▲2022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심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지역대 설립의 건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임원 임기연장 및 추천의 건 ▲정기총회 부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지역대 설립의 건은 경기충남북부지부 3개 구조대(드론수색, 궁평, 대부), 2개 봉사대(여성, 수원), 경남동부지부 마산수색구조대, 전남서부지부 삼학구난대, 경북지부 교육지원대 등 총 4개의 지부에서 8개의 구조대가 설립되었다.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서는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회장 표창(단체 2곳, 개인 6명), 해양경찰청장 표창 5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은 교육과 관련하여 해양경찰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타 교육기관 대비 그동안 동결되었던 교육비 및 강사료를 물가 인상에 따라 3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임원 임기연장 및 추천의 건은 협회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23. 2. 28)가 정관 제14조제2항에 따라 1년('24. 2. 28. 까지)에 한하여 연장하였고 기관장 변경 및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등 비상임 임원 6명이 추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지부 회비와 직제규정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협회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노력에 호소하고 전국 지부장 회의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의장(김성태 회장)은 올해 전국 협회장 회의, 지방청별 해양경찰-지부 모임 등의 계획을 피력하였고, 본회와 지부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 「2023년 정기총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단체기념 사진



▲ 협회 1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1일 부산 영도구 목장원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재적 154명 중 96명(참석 37명, 위임 59명)이 출석하였다. 총회에는 김성태 회장, 이강덕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수영 본청 구조협력계장, 손성민 부산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등이 참석했고 임원, 협회장 및 지역 대장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 ▲2022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출 및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상정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임원 선출 및 승인의 건에서는 부산지부 이기태 협회장, 울산지부 구춘근 협회장, 경남서부지부 김상민 협회장 등 3명의 협회장이 지부 선출되어 총회에서 최종 승인받았다.

특히 이날은 협회가 창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민간해양구조의 주축이 될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케이크 커팅식에 김성태 회장, 이강덕 사무총장, 민홍기 고문과 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함께하였다.

이날 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선진해양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창설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날 구조협회는 수많은 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과 호흡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재난분야에서 민간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해양에서 민간의 대표로서 구조협회의 역할과 비중은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민간협력 지원 체계의 지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조협회가 구조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였다.

MARSA NEWS | 본부 뉴스 |

이어 김성태 회장은 “우리협회는 2013년 설립 후 수많은 우여곡절과 부침에도 불구하고 비록 느리지언정 뒷걸음 치거나 멈추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와 어느덧 회원은 2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19개 지부와 120여개의 구조대라는 명실상부한 해양구조세력으로 성장하였다.”며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2023년을 우리협회가 한걸음 더 도약 하는 원년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협회의 위상강화와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일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협회가 우리의 동반자인 해양경찰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말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해양봉사활동에 헌신해온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포상수여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표창장(개인 5명), 회장 표창장(단체 2곳, 개인 6명) 등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해양경찰청장 표창장



▲ 회장표창(개인)



▲ 최우수지부 경기충남북부지부



▲ 최우수지역대 경북지부 경북특수구조대

포상수여자 명단

• 해양경찰청장 표창장

정성문(부산지부), 김상민(경남서부지부), 박종문(전남남부지부 장흥구조대), 전복배(전북북부지부 시민해양봉사대), 이만영(인천지부 웅진구난대)

• 회장표창(단체)

경기충남북부지부(최우수지부), 경북특수구조대(최우수지역대)

• 회장표창(개인)

허범식(경남동부지부 특수구조대), 이요한(경기충남북부드론구조대), 류정진(경남서부지부 통영구조대), 박정희(인천지부 남양주구조대), 허성주(전남남부지부 완도구조대), 이행식(경북지부 울진구조대)



# 「2023년 강사워크숍」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월 1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교육센터에서 「2023년 강사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협회의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해양 안전 문화보급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지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단체기념 사진

워크숍은 본회 최수근 교육연구본부장을 비롯한 총 58명의 협회 강사들이 참석하였고 ▲2022년도 교육결과 발표 ▲교육 규정 안내 ▲기수별 인사 ▲교육위원회 구성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강사들에게 협회 교육 규정의 변경사항을 강조하고 각 과목별 필수 점검사항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교육 가이드 라인의 개정사항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해양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강사들에게 우수지도자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우수지도자 표창에는 인명구조요원 분야에서 명유천 강사가, 재난안전지도사 분야에서 김성필 강사가 수여 받았다.

이날 행사를 진행했던 최수근 교육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강사워크숍을 개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시 이렇게 모여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강사들과 소통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 기수별 강사 인사



▲ 교육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 중인 최수근 교육연구본부장

## 경기충남북부지부, 평택해양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 단체기념 사진

경기충남북부지부는 지난 3월 14일 평택해양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배금란 협회장과 4명의 지역대장 및 교육팀장이 참석하였고 해양경찰에서는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과 경비구조과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그동안 경기충남북부지부가 서해안 안전을 위해 평택해경과 함께 구조활동 및 수색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민간에서의 해양 구조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앞으로 안전한 바다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배금란 경기충남북부지부 협회장은 “우리 구조대는 매일 항·포구 인근에서 순찰활동에 나서며 해양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실종자 수색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평택해경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경북특수구조대, 2023년 활동을 알리는 「바다 안전 개해제」 개

지난 3월 11일, 경북지부 경북특수구조대는 포항에 위치한 구조대 교육장에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바다 안전 개해제」를 개최하여, 올 한해 바다 봉사활동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이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으며,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MOU를 체결했던 제천수상구조전문 의용소방대 등 각 분야별 대외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경북특수구조대의 순항을 응원하였다.



▲ 단체기념 사진

경북특수구조대는 이날 행사에서 공기 콤프레셔, 산소헬륨 분배기·분석기, 재호흡기, 테크니컬 장비 등 구조대원들을 위한 전문 잠수장비 추가 비치를 위해 최근 설치한 장비 운용실을 외빈에게 소개하면서 구조대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지난 2월 27일, 포항 구룡포 호미곶 6톤급 어선 선원실종사고에서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선 황우진 교육훈련 팀장이 포항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황승욱 경북특수구조대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구조구난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수준 높은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바다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외빈들에게 장비실을 소개 중인 황승욱 대장



▲ 포항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은 황우진 교육팀장

## 통영구조대, 제17·18대 대장 이·취임식



▲ 단체기념 사진

지난 3월 31일, 경남서부지부 통영구조대는 제17·18대 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서부지부 김상민 협회장을 비롯하여 강성중 도의원, 정광호 시의원 그리고 통영구조대장 및 대원 등 총 135명이 참석하였다.

김필수 이임대장은 어려웠던 코로나시기에 제17대 통영구조대장으로 역임하며 통영구조대의 단합을 이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통영의 바다안전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지역사회에 봉사단체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김필수 이임대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아쉬움이 가득 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조대장을 역임하는 동안 성실하고 누구보다 통영구조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열성적인 날을 보냈다.”며 “통영구조대는 바다의 땅 통영을 사랑하는 대원분들의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이 합해져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어 새롭게 취임한 류정진 신임대장은 2010년 통영구조대에 입회하여 13년간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을 해온 해양구조 전문가이자 통영구조대가 통영의 대표 봉사단체로 거듭나기까지 함께 성장해왔다.

류정진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는 각종 인명구조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구조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며 “우리 구조대는 2001년 창설이래 해양사고 피해자 구조 및 수색작업, 해양쓰레기 수거 등과 같은 해양환경 정화작업은 물론이고 여러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이러한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경남동부지부, 마산수색구조대 발대식

지난 3월 25일, 창원해양경찰서 대강당에서 경남 동부지부 마산수색구조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발대식에는 김성중 경남동부지부 협회장과 초대 이판규 마산수색구조대장, 지역 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하였고 해양경찰에서는 장대운 창원해양경찰서장, 경비구조과장·계장, 외부에서는 최형두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 SMG연세병원 총괄 이사 등 총 80여명이 참석하여 마산수색구조대의 발대식을 축하하였다.



▲ 단체기념 사진

마산수색구조대는 기존의 마산구조대를 재편성한 조직으로 드론, 다이빙, 제트스키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총 80여명의 구조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구조대다. 이판규 대장 역시 마산구조대에서 7년이상 활동해온 해양수색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이판규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 이 자리는 뜻깊고 기쁜 자리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따르는 무거운 자리이기도 하다.”며 “우리 구조대는 그 어떤 단체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과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고, 한국해양구조협회 대원이라는 자신감도 크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온 봉사활동을 잘 이어 나간다면 우리 마산수색구조대가 박수받는 봉사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성중 협회장은 “오늘 마산수색구조대 발대를 통해 기존 창원·특수구조대와 서로 협력, 합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조대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바다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마산수색구조대는 발대식이 끝난 후 지난 4월 6일, 마산출장소로 사용하던 동성동 마산수협 건물에서 구조대 사무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마산지역의 해양안전지킴이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 구조대 사무실 현판식

## 통영구조대, “우리 모두 다함께 海 치워요”



▲ 단체기념 사진

통영구조대는 지난 3월 12일, 수륙해수욕장에서 올 한해 첫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류정진 대장을 비롯한 제주석, 조창국 자문 그리고 대원들과 대원들의 가족 등 총 30 여 명이 동참하여 뜻깊은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해수욕장에는 바다에서 떠밀려 온 각종 그물, 페타이어, 생활 폐기물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통영구조대는 이날 약 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올 한해 해양환경정화 활동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 해수욕장 쓰레기를 수거 중인 대원들



▲ 수거된 쓰레기를 이동시키고 있는 대원들





## 전남동부지부, 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



▲ 설거지 봉사 중인 전남동부지부 대원들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3월 3일, 여수 미평 장애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활동에는 조병중 전남동부지부 협회장을 비롯하여 차순자 봉사대장과 대원 총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을 위해 반찬 준비 및 배식과 설거지봉사를 진행하였다.

전남동부지부는 매월 3회 정기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수복지관 1곳에 주 1회, 노인시설 8곳에 주 3회 설거지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전남동부지부 조병중 협회장은 “해양 봉사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대원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 경남서부지부, 「해양구조인의 밤」 개최

지난 1월 13일, 경남서부지부는 죽림 해피데이에서 「해양구조인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민 경남서부지부 협회장을 비롯하여 각 구조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강성중 경남도의원, 김태균·김희자 시의원, 김광섭 정점식 국회의원 통영사무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 단체기념 사진

「해양구조인의 밤」은 경남서부지부가 한 해 동안 통영 바다를 위해 활동해 온 것을 정리하고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지난 2018년 처음 개최하여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식이 개최되었으며 ▲국회의원 표창에 윤평만, 김홍기, 조형호, 이경희 ▲경상남도지사 표창에 차영주, 유현정 ▲경상남도회의의장 표창에 김진미, 이재호, 하해숙, 박세일 ▲통영시장 표창에 김종준, 이충호, 이효용, 박영철 ▲통영시의회 표창에 임선영, 윤하원, 박선아, 공혜나 ▲해양경찰청장 감사장에 김상민, 배기송 ▲통영해양경찰서장 감사장에 장희명, 백두환, 원재희 ▲사천해양경찰서장 감사장에 강성곤, 윤두현 대원이 수상하였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통영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고 때마다 구조에 나서는 해양경찰은 바다의 수호천사와 같다. 하지만 육지와 달리 기상이변이 심한 넓은 바다에서는 민관협력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해양사고 현장에서 숙련된 구조자로 해양경찰과 협력, 구조 활동을 펼치고, 평상시에는 시민을 위한 스쿠버교육과 청소년 생존수영, 해양쓰레기 수거 등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간해양구조대야 말로 진정한 시민의 수호천사”라고 격려하였다.

이어 김상민 경남서부지부 협회장은 “민·관 협력체계가 굳건한 해양강국들의 구조·구난 체계를 따라 가기 위해서 아직은 물질·인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봉사자들은 거친 파도를 비롯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봉사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경남서부지부가 선진민간구조 시스템을 구축, 대한민국의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김상민 경남서부지부 협회장



▲ 천영기 통영시장과 표창장 수상자들



# 전국 구조·구난소식

## | 경기충남북부지부, 안산 탄도항 70대 실종자 수색작업



▲ 탄도항 수색구조 당시 바다 안개



▲ 수색구조를 위해 파출소에 모인 경기충남북부지부 협회장 및 대원들

지난 3월 19일 오후 12시 40분경, 경기도 탄도항 형제 바위 인근에서 70대 부부 중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평택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연락받은 경기충남북부지부는 배금란 협회장을 비롯한 지역대장, 교육팀장, 대원 등 총 19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배금란 협회장은 대원들과 함께 선박을 통해 바다 수색에 나섰지만 사고 현장은 서해상에 낀 짙은 바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나오질 않아 수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충남북부는 드론수색대를 투입하였고 다행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드론을 활용하여 수색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경기충남북부지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하였으며, 해양경찰에게 실종자를 최종 인계하였다.

## | 경북지부(경북특수·포항구조대·구난대) 호미곶 어선 선원 실종사고 수색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27분께 포항 남구 호미곶 북동방 약 1.2km 해상에서 조업을 나간 어선 A호(6톤급, 연안자망, 선원2명)가 연락이 되지 않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되었다.

우리 협회 경북지부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0시경 포항 해양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였다.



▲ 실종자 수중 수색 중인 경북지부 소속 대원들

## MARSA NEWS | 지부/지역대 뉴스 |

수색에는 경북특수구조대, 포항구조대가 하루 평균 12명씩 이틀간 참여하였고, 경북지부 구난대에서 27일에 61척의 선박, 28일에는 42척의 선박을 동원하였다.

사고 선박에 있던 선장 B씨(40대)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에 인계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C씨(30대)는 아직 발견되지 못하였다.

이어,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호미곶 선원 실종 사고에 적극적으로 수색을 나서준 포항구조대 강도완 대원, 경북특수구조대 황우진 대원, 경북구난대 서만복 대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 | 울산지부, 방어진항 자살자 구조



▲ 신고를 받고 온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고 있는 투신자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20분께 방어진항에서 60대 여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울산지부 구춘근 협회장이 현장에서 투신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 조치 후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춘근 협회장에 따르면 방어진항 부두가 쪽에서 여성 두 명의 다툼 소리가 났고 이후, 한 명이 물속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목격한 구춘근 협회장은 \*햇갓대를 이용하여 투신자의 옷자락을 잡아 떠밀려가는 것을 붙잡은 채 인근에 있는 방어진 파출소에 즉시 신고하여 여성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구춘근 협회장의 빠른 대처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햇갓대 : 배에서 사용하는 나무막대 끝에 갈고리가 있는 물건

## Hot 人

삶의 터전인 이곳 궁평항에서  
책임감 하나로 구조활동을 이어온

# 신상운 궁평구조대장의 이야기

경기충남북부지부 궁평구조대  
신상운 대장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궁평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가어항이자 낙조가 유명한 곳이다. 방파제 끝에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해양휴식공간인 피싱피어(Fishing Pier)가 설치되어 있어 고기를 낚으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다. 또한, 항구 옆 궁평해변에서는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 바지락, 굴, 가무락, 낙지, 칠게 등 연안 서식 생물이 풍부하여 다양한 어촌 갯벌 체험이 가능하고 해변 뒤에는 궁평항 해솔길이 있어 산책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궁평의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궁평항은 서해의 어업 중심지이자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지이기도 하다.



▲ 궁평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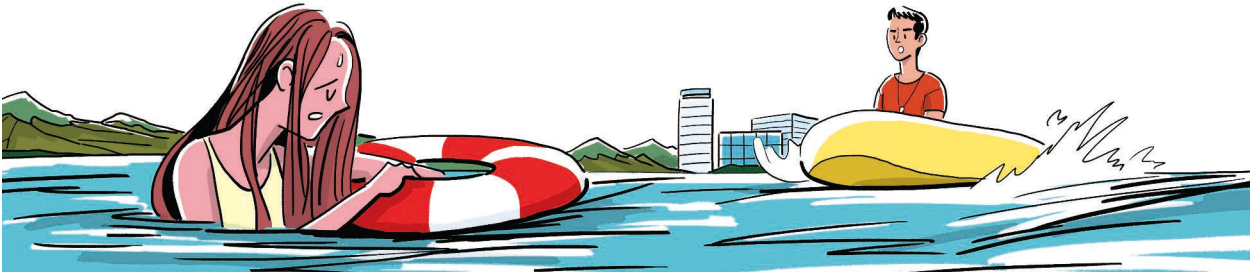
그러나 서해안 특유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춘 궁평항도 한때는 잦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여 어민들이 고심하던 지역이기도 했다. 오랜기간 이곳 궁평항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누리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온 경기충남북부지부 궁평구조대 신상운 대장은 지금의 궁평항을 만들기까지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사람 중 한 명이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궁평구조대의 구조활동을 들여다보았다.

## 궁평항에서 본격적인 해양구조활동의 서막

신상운 대장이 처음 어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 김포였다. 김포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빈도가 적어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었다. 이후 궁평항으로 어업 구역을 옮기게 되면서 민간해양구조대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포와 비교하여 15년 전 만 해도 궁평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민간에서 해양구조활동을 하는 조직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고수습에 대한 체계가 없었다.

처음 민간에서 해양구조활동 시작의 계기가 된 건 해양경찰 소속 민간방재단 활동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인원들과 함께 어선의 기관고장, 표류 등 크고 작은 선박사고 수습 위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궁평항이 어항 공사를 하면서 선박의 입출항과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이 많이 갖춰졌을뿐만 아니라 궁평구조대의 활동으로 인해 사고수습 외 사고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해양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궁평구조대가 지금과 같은 조직으로 거듭난 건 6년 전 신상운 대장이 경기충남북부지부 배금란 협회장을 만난 후부터다. 배금란 협회장은 평택해양경찰과 함께 민간에서 활동하는 민간구조세력의 통폐합을 위하여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평택서 소속 5개의 민간해양봉사단체를 한국해양구조협회로 통합시켰다. 그때 배금란 협회장도 통합과 함께 경기충남북부지부 협회장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협회 활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신상운 대장도 배금란 협회장과 함께 협회로 입회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현재 궁평구조대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들은 100여 명이 넘어섰고 다년간의 잠수경력과 선박을 보유한 실전에 강한 전문 구조대원들이다.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시 대기 중

궁평구조대는 개인 어선을 보유한 대원이 40여 명, 잠수기술을 보유한 대원이 50여 명이 된다. 신상운 대장은 주중과 주말 할 것 없이 어업을 하는 도중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달려간다. 주중에는 어업을 하고 있는 대원들과 함께 상시로 순찰을 돌고있다. 매일 아침 해경에서 비상근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체크하고 혹시라도 작은 사고라도 있을 시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다. 계류 선박만 약 200여 척에 달하기 때문에 항상 선박의 상태를 점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주말에는 잠수대원 8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잠수대원들은 주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어업을 하는 대원들에게 일임하고 주말에 궁평항 구조대 사무실을 거점으로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한다. 또한, 주말에는 낚시객들과 관광객들이 붐비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위험지역이나 밤에는 바닷가 근처 접근을 제한한다. 이러한 안전 예방 때문에 신상운 대장은 주중에도 주말에도 쉴 틈이 없다.

특히,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날에는 구조대가 조를 이뤄 24시간 대기한다. 이런 날은 일기예보를 보고 사전에 구조대 회의를 거쳐 안전에 유의하며 활동에 나선다. 이러한 신상운 대장과 궁평구조대 덕분에 해양사고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 출동은 즉각적으로, 사고수습은 빠르게

해양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소에 의해 해양사고는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간이 통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신상운 대장과 대원들은 365일 공평항에 대기하며 해양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출동하는 것이다.

신상운 대장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고는 대부분 선박사고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수습이 가능하지만, 연간 여러 차례 평택해경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지원요청을 할 때도 많아 실종자 발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석문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평택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헬기 등을 동원하였고 공평구조대는 신 대장과 대원들이 현장에 나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4일간 실종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수색에 난항을 겪었던 그때 공평구조대는 바닷속에서 로프를 길게 연결하여 일렬로 줄을 이뤄 수색작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서해의 특성상 갯벌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칫하다가 수색하는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로프로 인해 구조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수색 범위도 넓혀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수색 5일째가 되던 날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평구조대의 기지에서 발휘된 것이다.

신상운 대장과 공평구조대의 기지가 발휘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작년 8월 12일, 경기 화성시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소속 F-4팜텀 전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과 해경은 현장에 구조인력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진행하였고 평택해경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공평구조대도 현장에 투입되었다. 사고 당시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다행히 비상탈출에 성공하여 근처 어민에게 구조되었지만 물속에 가라앉은 전투기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공평구조대는 사고 현장이 양식장 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어선을 투입하여 수색에 나섰고 초음파를 발신하여 그 반사 파동으로 수중 장애물이나 해저 상황을 탐지하는 소나(SONAR)를 통해 물속에 전투기가 위치한 지점을 발견하였다. 공평구조대 덕분에 공군에서는 3시간 만에 전투비행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 달간 공군이 전투비행기를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었다.



▲ 석문방조제 실종자 수색작업 현장



▲ 공군 추락 전투비행기 수색 중인 공평구조대

## 어업 종사자로서의 책임감

신상운 대장의 구조 및 사고수습 사례는 이제 수를 셀 수 없다. 앞에 나열한 사고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 서핑실종자 수색, 시화방조제 자살자 수색 등 사고의 사연은 다양하고 지원요청은 끝이 없다. 그러다 보니 경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종자의 가족들이 직접 찾아와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특별한 책임감이 생겨서 한 건 아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고를 자주 목격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일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깐 당연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조직이 구성된 것이다. 나 혼자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함께 하는 대원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온 것이다.”



처음부터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신상운 대장이 구조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거창하지 않다.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신상운 대장 스스로는 당연한 일이기에 거창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바다에서의 구조작업은 육지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구조자 역시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취미활동의 봉사가 될 수는 없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사고수습을 해주는 것이 모든 이들이 편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구조활동에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달 해안가 청소를 하면서 궁평항 주변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도맡아 해오고 있다. 특히 어촌계와 상의하여 노인분들이 청소하기 힘든 비탈진 곳도 직접 청소하는 세심함도 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곧 그만둘지도 모른다.”

이건 그의 작은 투정에 불과하다. 그가 진심으로 바다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건 이 험난한 바다 봉사활동의 명맥을 10년 이상 유지해온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이어온 것이 아니라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 구조자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그의 행보를 지켜보면 어찌 바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바다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며 궁평항을 지키고 있을 신상운 대장의 활동을 열렬히 응원하며 앞으로 그가 이어갈 바다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 선박사고 후 기름 방제작업 중인 궁평구조대



▲ 화재사고 후 부유물 제거중인 신상운 대장



▲ 스크류 줄감김으로 표류 중인 선박 수리를 위해 잠수한 궁평구조대

회문명: 2022. 1. 14. 오후 3시 25분 26초 GMT+09:00  
지명명: 2022. 1. 14. 오후 3시 25분 26초 GMT+09:00  
37° 7' 51.889" N 126° 38' 56.944" E  
7.6 4-1 서신면  
화성시  
경기도



# 안전을 부탁 海



## 하늘 위의 산업혁명, 드론의 대중화

지난 4월 1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2030 국제 엑스포'유치를 기원하는 대규모 드론쇼가 개최되었다. 1천500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수를 놓았고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몰린 시민들은 화려한 풍경에 여기저기서 탄성을 질렀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함에 따라 환영 메시지를 담아 표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여감 없이 보여주었다.

'하늘 위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무인비행장치 드론은 활동의 영역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토지측량과 시설물 점검 등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농업, 운송, 건설 등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는 무한대다.

재난과 사고 발생 시 구조작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2일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 화재 잔불 진화작업에도 소방 당국은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해양경찰에서도 해양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시 드론 수색대를 투입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280억 원을 투자하여 드론 200대를 해역에 투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구조작업 현장에서도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해양 구조활동 시 드론의 투입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요건이 되었다.

우리협회에서도 최근 드론구조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지부가 점차 늘고 있으며, 드론구조대가 없어도 지역대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시 이미 드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협회의 다양한 구조사례를 통해 민간에서 해양구조활동 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 4차산업혁명에 따른 드론구조대의 창설

우리협회가 공식적으로 드론구조대를 창설한 건 지난 2020년 전북북부지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전북북부지부는 군산해양경찰서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해상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를 창설하였다.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는 군산해양경찰 무인항공기 운용팀과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북부지부 소속 드론팀으로 구성되어 40명의 민간회원과 10여 명의 해경직원 등 총 50명이 활동하는 민·관 합동 구조대이다.

발대 이후 드론순찰대는 군산항과 새만금 방조제 및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주말과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광범위한 연안 해상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울산지부도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면서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흰수리 드론 수색대'를 발대하였다. 울산지부의 경우 순수하게 민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정석 대장을 중심으로 드론 전문가 60여 명이 대거 영입되었다.

드론구조대의 활약상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올해는 부산지부와 경기충남북부지부에서 드론구조대를 발대하여 본격적으로 구조의 기술 진보화에 뛰어 들었다.



▲ 전북북부지부 스마트 해양드론 순찰대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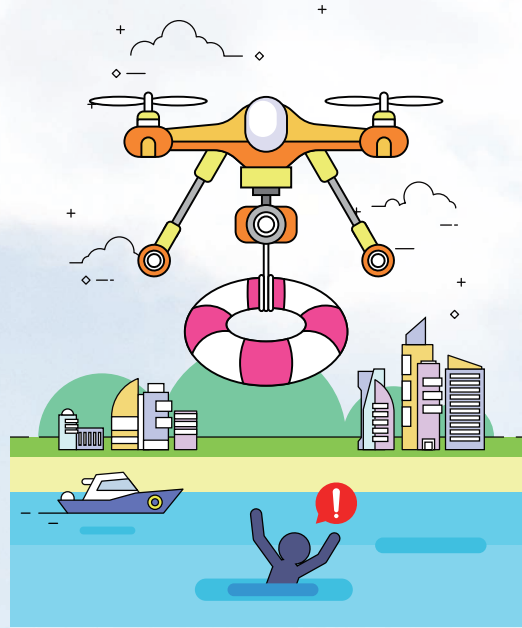


▲ 울산지부 흰수리드론구조대 발대식

## 드론을 통한 가시적 성과

협회는 드론구조대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대에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대원들을 영입함에 따라 사실상 전국 지역대 대부분이 드론을 구조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활용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구조 분야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전북북부지부의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는 해양경찰, 해군과 협업하여 항포구, 방파제 등 매월 4회 이상 순찰을 진행하여 사고 예방과 경계 지역 강화에 힘쓰고 있다. 부산지부에서도 남항대교, 태종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상투신 사건, 여름철 물놀이 중 실종된 사람을 찾을 때 드론으로 단시간에 실종자를 발견하면서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테트라포드, 무인도 등 수색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어서 골든타임 확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번에 설립한 경기충남북부지부 드론구조대의 경우도 지난 몇 년간 이미 드론 전문가들이 지부에 입회하면서 수색 활동에 난항을 겪을 때 드론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 2년 전, 레저보트가 뒤집힌 사고에서 3명의 실종자가 발생할 때도 드론으로 바다 위를 수색하여 골든타임 안에 실종자를 발견하여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2021년도에도 충남당진 한진포구 선착장에서 어선전복 사고가 났을 때, 실종 선원을 드론으로 찾기도 하였다.



드론의 활용은 구조활동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일상이 멈추었을 때도 우리협회의 봉사자들은 드론을 활용하여 방역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북북부지부의 경우는 군산 관내 공공기관 및 다중시설과 군산에서 34km 떨어진 섬 방축도에도 방문하여 방역작업을 함으로써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장소 등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소독약을 살포하여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드론은 매월 진행되는 해양환경정화활동에서도 방파제, 항포구에 드론을 띄워 사전에 쓰레기 밀집 지역을 찾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경기충남북부지부 충남당진 한진포구 선착장서 어선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현장



▲ 전북북부지부 드론방역 현장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

드론의 올바른 사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난해, 8월 협회 소속 강사들이 전국에서 드론을 운용하여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 역량 강화 특화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는 우리협회 제주광역시부의 박개화 교육팀장, 김수복 교육팀장과 전북북부지부 스마트 해양드론순찰대 초대 대장을 역임한 신철원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해양 수색구조에서 드론의 구조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 분야에서 좀 더 세분화된 기술이 요구되어 드론수색 구조대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필요 요소를 공유하여 실제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내용에 따라 수색구조 경험사례, 수중드론 운용법 등 실내 이론교육과 실외 구조 시연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드론구조대원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협회 본회 임직원들 역시 지난해 드론 국가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자격시험에 도전하여 전원 최종 합격하였다. 또한, 향후 협회의 구조드론의 활용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목표로 드론 정비사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였고 현재 지도조종자 교관 자격증 교육을 이수중에 있다.

이처럼 구조의 세분화와 전문 기술도입에 따라 협회도 시류에 맞춰 구조기법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수요자가 많아지는 만큼 구조 현장뿐만 아니라 훈련 등에도 이제는 필수로 드론이 등장한다. 현재 협회는 최근 눈에 띄게 전국각지에서 다년간의 경력과 다양한 상황에서 드론을 운영해온 드론 베테랑 조종자들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과 발전 속에는 반드시 틈이 있기 마련이다. 드론으로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인력이 늘어나는 반면 현장에서 조종 미숙이나 적합하지 않은 장비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협회는 빈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드론 구조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 발전 못지않게 구조자들의 의무와 책임감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기에 협회는 가장 일선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의 도입으로 인한 구조기술의 적용과 그에 따른 구조 전문가의 자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에 최대한 긍정적 결과를 이끌고 최종 목표인 해양사고 제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제주도 「드론 역량 강화 특화교육」 현장

# 환경을 부탁 海

## 쓰레기 분리수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잘못된 재활용 분리수거 상식



환경부 및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 연간 960만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방역에 집중하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문화가 활성화되었고 플라스틱의 배출량은 점점 증가해왔다. 이제는 배달문화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정착된 지 오래며, 편리함을 위해 플라스틱 소비를 멈출 수 없게 되었다.

### 그렇다면 이 많은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전체 플라스틱 중 단 230만톤(24%)이 재활용이 되었고, 380만톤(40%)은 고형연료, 290만톤(30%)은 소각, 60만톤(6%)은 폐기되었다. 즉 76%가 태워지거나 버려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거와 선별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전국의 1만여 개에 달하는 재활용 업체들이 대부분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하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중 정확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만을 골라내는 것은 수작업으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분리수거를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분리수거하기가 애매한 복합적인 재료로 만든 기업의 제품, 라벨 등을 제거하기 힘든 쓰레기 등이 무분별하게 재활용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면서 해외의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 최첨단 장비로 인한 선별의 자동화를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 우리는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발표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소비자 문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천 명 중 투명 플라스틱 아이스컵이나 투명 과일 팩 따위를 투명페트병과 같이 버리는 줄 아는 응답자는 32%가량으로 나타났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생수병과 음료수 병만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분리배출 방법을 몰라 혼합 배출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이러한 혼합 배출로 인해 일반 플라스틱으로 최종 선별장에 흘러 들어가더라도 수작업으로 인해 정확하게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활용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 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 잘못 알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1. 페트병·유리병은 뚜껑을 열어야 할까, 닫아야 할까?

뚜껑을 분리해서 버리면 뚜껑은 플라스틱류로 크기가 작아 개별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면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별도 분리가 가능하다. 뚜껑을 막은 페트는 이물질이 남아 있어도 약 7회 세척하지만 뚜껑이 열려있는 페트는 2차 오염으로 약 18회 세척 해 비용부담이 있다. 또한, 유리병 역시 병들과의 충돌 시 파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아서 배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깨져있는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한다.



▲ 페트병 분리수거 예시



▲ 유리병 분리수거 예시

## 2. 샴푸통과 같이 복합적인 플라스틱의 분리수거는?

많은 사람들이 샴푸통처럼 노즐이 함께 있는 제품은 내용만 세척 한 채, 함께 플라스틱에 버린다. 하지만 샴푸의 펌프 노즐에는 스프링 등 다양한 재질로 구성돼 재활용이 어려워 노즐 부분만 일반쓰레기에 버리고 샴푸통은 깨끗하게 세척하여 플라스틱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 분리 후 깨끗하게 세척한 샴푸통

## 3. 종이테이프는 진짜 재활용이 될까?



친환경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기업에서 택배 포장 시 종이테이프를 많이 사용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종이테이프 역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상자에 부착한 채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25개의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를 분리배출 할 때 다른 종이류가 섞이지 않아야 하며 코팅지나 이물질이 묻은 종이를 제거해야 한다.

종이테이프의 경우 앞뒷면이 테이프나 시트의 점착면을 보호하고 사용 후 잘 떼어지게 하는 박리제와 점착제가 코팅되어 있어서, 분리수거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박스 등을 분리배출할때는 부착된 테이프를 모두 제거한 후 분리 배출한다.

## 4. 재활용될 것 같지만 안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재질로만 이루어 졌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배출이 되는 건 아니다.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수작업으로 골라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함께 오는 배달용 랩칼과 같이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또한, 빨대, 칫솔 등 플라스틱일 것 같지만 재질이 복합성질이거나 제품에 분리배출이 안되는 재질이 함께 쓰인 것은 분리배출이 안된다. 안경집, 아이스팩,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멜라민 소재의 그릇, 전화기. 코팅된 종이(광고 전단지), 명함, 영수증 등이 그 예시이며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들이다.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 빨대	▲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 (배달용 랩칼)	▲ 칫솔	▲ 코팅된 광고전단지

## 5. 먹다 남은 약은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되는가?

집에서 사용하고 남아서 버려지는 약품들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진다면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약 성분들이 빗물에 녹고 땅에 스며들면 동식물 등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고 결국 먹이사슬의 최종 목적이인 인간의 식탁에 올라 오게 된다. 폐의약품은 반드시 한 번에 모아서 근처에 있는 약국에 전달한다.

폐의약품 수리과정



7. 정말 음식물 쓰레기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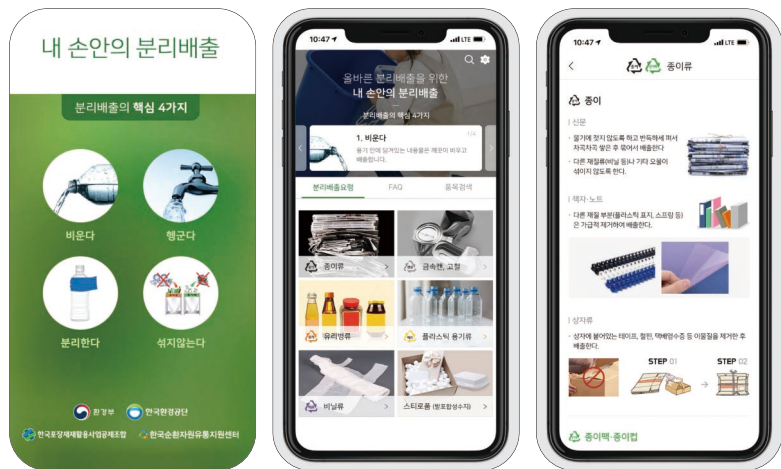
	<p><b>1) 장류</b> 여기서 말하는 장류는 된장, 고추장 등을 말한다. 장류에는 일반 음식보다 훨씬 많은 염분이 있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장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p>
	<p><b>2) 동물뼈, 어패류</b> 음식물 쓰레기 분류의 대전제는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는지, 분쇄기에 잘 갈리는지가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길긴 닭뼈, 돼지뼈, 조개껍질, 달걀껍질 등은 분쇄기에 잘 갈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물이 먹었을 때 탈이 날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p>
	<p><b>3) 과일·야채 껍질 분리수거</b> 바나나, 사과, 귤 등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다. 그러나 섬유질이 많아 분쇄하기 힘든 콩, 양파, 마늘, 옥수수, 파인애플 껍데기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단단한 옷수수대나 고추 꼭지, 과일 씨앗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p>
	<p><b>4) 커피 찌꺼기</b> 커피 찌꺼기, 차 찌꺼기, 한약 재료 등은 모두 일반쓰레기에 버린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의 경우 버리기 전, 가정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커피 찌꺼기를 한데 모아 옷장, 냉장고, 신발장 등에 탈취재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자레인지에 커피 찌꺼기를 넣고 2분 정도 돌려주면 냄새가 말끔히 사라진다. 또한, 휴과 함께 화분에 거름으로 사용해도 식물 성장에 필요한 무기질이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식물이 잘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p>

진짜 변화해야 하는 것

쓰레기 재활용 업계에서 바라는 분리수거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며 여기에 나온 것 외에도 분리배출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은 많다. 그렇다고 마냥 국민들에게만 강요할 순 없다. 아직도 분류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건 제작하는 기업에서 포장 재질에 대한 단순화 작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재질을 지양하고 환경을 고려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재질을 만드는 기업의 책임있는 친환경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분리배출에 있어서 단순한 수작업이 아닌 공정률을 높일 수 있는 설비의 제도화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리수거 시 헛갈리는 품목이 있다면 환경부가 개발하고 보급한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분리배출 요령부터 품목별로 검색가능하여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메뉴를 통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 해양경찰 소식

## “출항 전 보트 미리 점검하세요” 해양경찰청,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월 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 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 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꼭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어 점검 방법도 배우시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639건 중 2,136건인 81%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사고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59%) > 고무보트(23%) > 세일링 요트(8%)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활동이 전체 표류 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은 정비 불량(66%) > 운항부주의(10%) > 연료고갈(9%)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85%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점검 서비스는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출처: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소식

# 방문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신청 가능해져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문 없이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3월 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되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상레저종합시스템 초기화면을 통해 이용 목적에 따라 조종면허, 기구등록, 안전 검사 등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안전 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의 휴대전화로 안전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해 주는 전자고지 형식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

특히 기구 등록원부, 안전 검사증 등 각종 증명서 출력을 온라인 서비스로 대폭 확대해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모바일 기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중심인 서비스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시스템 서비스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 사항이나 사용자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 한눈에 보는 달라진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안내문을 온라인 채널로 받고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즉시 안전검사 신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2차 서비스 실시 (23. 3. 7)

**2 온라인 수상레저서비스 확대**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가능!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증 등 온라인 출력이 가능해요!

**3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  
민간인증서 도입으로 편리한 로그인 가능  
PASS앱, 카키오, 네이브 3가지 도입

**4 전자문서의 보안강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에서 출력하는 각종 증명서에 적용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출처: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소식

# 해양오염사고 205건 발생, 오염물질 314.4㎏ 유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해 205건의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기름 등 오염물질은 314.4㎏가 유출되었고 2021년과 비교할 때 사고 건수는 42건(17%) 감소하고 유출량은 1.6㎏가 (0.5%) 증가된 것으로 밝혔다.

사고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류이적 등 기름유출을 막기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유출량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 7월 서귀포 어선 화재사고와 12월 군산 화물선 침몰사고로 인해 적재된 기름이 다량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 7.4. 어선 3척 화재(서귀포, 75.5㎏), 12.21. 화물선 침몰(군산, 91.5㎏) 전체 유출량의 약 53% 차지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41.5%)으로 가장 많으며,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4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원인별) 부주의(85건) > 해난(60건) > 파손(43건) > 고의(10건) > 미상(7건)

\*\* (오염원별) 어선(85건) > 기타선(43건) > 유조선(26건) = 화물선(26건) > 육상기인(19건) > 미상(6건)

해역별로는 부산이 40건으로 오염사고가 가장 많으며, 여수, 목포, 서귀포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해역별) 부산(40건) > 여수(23건) = 목포(23건) > 서귀포(14건) > 통영(11건) 등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기름이 바다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의 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 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소식

#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하세

## 인명구조장비함 위치 등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32건 공간 정보 데이터로 개방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2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완료에 따라 안전한 바다낚시 및 연안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간데이터 16종(32건)으로 구축하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낚시어선의 주요 항로·주조업 위치, 연안출입통제구역, 연안위험구역, 인명구조장비함 위치, 차량 해상추락사고 위치 등 해양안전 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을 행안부로부터 국비 예산 약 3억 9천만 원을 지원 받아 참여 기업의 청년인턴 11명과 함께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GIS) 형태의 데이터\*로 구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 '공간정보 데이터'란

- ▶ GIS(공간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치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지도, 도표 및 그림들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를 제공
- ▶ QGIS 오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를 전자 지도상에 확인 가능

해양경찰청 최초의 공간정보 형태의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국민과 해양 낚시 및 레저안전 서비스 창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은 물론 낚시 등 해양레저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이 지속적으로 발굴·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 공공데이터(data.go.kr) 개방 현황

출처: 해양경찰청



#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2에 기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단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 지자체·수협·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참고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을 비롯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현황, 어선규모, 어업·양식시설의 면적 등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v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령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일 전까지 꼭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뉴스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 의

##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허용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

구분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
보험기간	1년 만기(일시납)	1년 만기(일시납)
보험료(산재형)	193,100원/연간	(산재1형) 268,800원 / 연간
보험료 지원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지원비율(0~50%) 다름
운영보험사	NH농협생명	수협중앙회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 바다에 어구보증금제 도입 첫 걸음!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사전 준비 척! 척!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

어구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어업인들은 현재 통발 어구를 약 1,320만개 사용하며, 연간 455만개를 교체하는 상황.이중 상당량(118만개)이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며, “어구보증금 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어구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디자인 / 색상



### 부착 방법(예시)

사용 패턴



1. 타이를 장착할 위치에 놓는다



2. 장착할 위치에 타이의 꼬리를 만든다



3. 타이의 꼬리를 고정대에 끼워 당겨 어구에 고정시킨다



4. 고정대에서 빠져나오는 꼬리와 수거용 파츠를 도구(가위, 니퍼)를 이용해 자른다.



타이 부착



가위 및 니퍼를 활용하여 타이 절단

[출처: 해양수산부]

## ● 국내 뉴스

# 올해부터 청각(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부착 방법(예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해조류	1,851,224	891,022	1,769,202	773,636	1,858,165	744,385
연근해어업	8,523	16,923	7,565	16,197	8,780	16,764
해면양식업	1,842,701	874,099	1,761,637	757,439	1,849,385	727,621
청각	3,507	2,513	7,202	4,119	11,363	3,883
연근해어업	249	712	94	115	46	53
해면양식업	3,258	1,801	7,108	4,004	11,317	3,830

## 부착 방법(예시)



< 청각 >

< 청각 건조시설 (채반식) >

[출처: 해양수산부]

# 원양 항해 중 아플 땐 언제, 어디서나 해양원격의료로

## 원양 상선과 원양 어선 160척에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 해양원격의료 실제 사례

2022년 12월 평소 심장판막에 문제 있었던 선원 Y씨는 두통 및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해양원격진료를 받은 결과, 심장판막 이상 소견으로 심전도기를 이용해 즉시 측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혈전 예방제 복용 및 산소 투여를 안내하였다. 이후 심전도 측정확인 결과, 심근경색 또는 조기 심실수축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소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빠른 병원 이송을 권유하였다. 현지 병원 도착 전까지 지속적인 산소 투여와 혈압, 산소포화도 측정을 안내하였고, 지속적으로 확인 관찰하였다. 현지 병원 진단결과, 승모판 탈출 및 심각한 기능부전, 대동맥 박리 및 폐색전증을 진단 받았으나, 다행히 해양원격의료를 통한 긴급 초동조치가 잘 이루어져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응급 수술을 받았고, 정상 회복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160척의 선박(23년 신규 20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1년) 선박 120척, 선원 2,800여명 → (‘22년) 140척, 3,000여명 → (‘23년) 160척, 3,500여명

원양 운항선박의 경우 근무특성 상 승선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위성통신으로 해양의료센터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8년 간 총 62,36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난해에는 14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7,70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2022년도 : 응급·처치지도 942건, 건강상담 16,760건

올해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 3월 20일(월) 신규 대상선박 20척을 선정하였으며, 3월 21일(화)부터 지난해 대상선박 140척과 함께 총 160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원양선원 4,000여 명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가벼운 질환(소화기, 피부 등)에 대한 건강 상담 등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기준〉

- ①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 국적선 및 국적취득조건부 용선선박(BBCHP)
- ② 장비설치 여건 : 통신환경, 국내입항 여부
- ③ 국적 선원수 : 국적 선원이 많은 선박 우선 선정
- ④ 신청 선사별 1척 이상,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선사 1척 이상에 우선권 부여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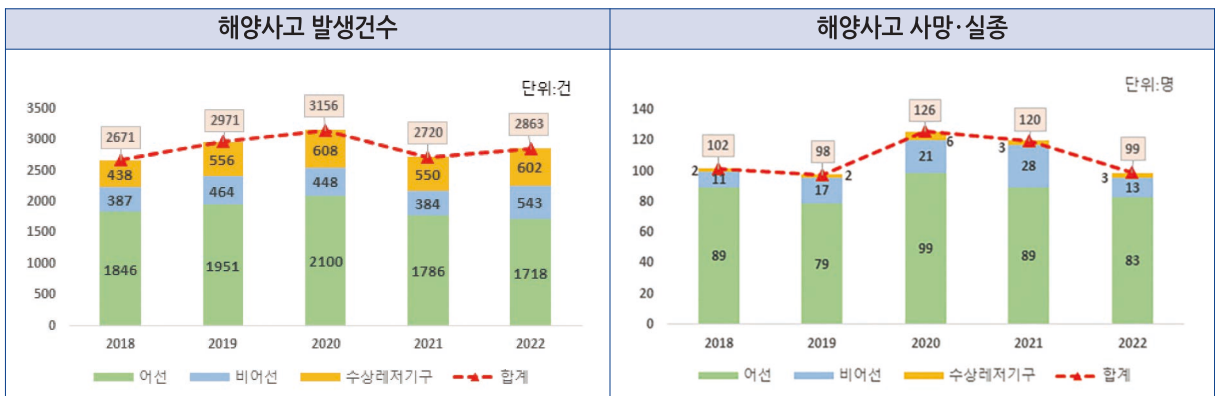
# 2022년 해양사고는 소폭 증가, 인명피해는 감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2년 해양사고 통계 공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2년 해양사고 건수는 총 2,863건이 발생하여 전년(2,720건) 대비 5.3% 소폭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99명과 313명으로 집계되어 전년(120명, 392명) 대비 각각 21명(17.5%) 및 79명(20.2%) 감소하였다.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전체 해양사고 2,863건 중 어선 사고가 60%(1,718건), 비어선 사고는 19%(543건), 수상레저기구는 21%(602건)을 차지하였다.

그 중 주요사고(673건)\*는 충돌 36.3%(244건), 안전사고 22.9%(154건), 화재·폭발 21.8%(147건), 전복 14.6%(98건)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고, 단순사고(2,190건) 중에는 기관손상사고가 39.8%(8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전년과 대비하여 주요사고는 6.4%(46건) 감소하였지만, 단순사고는 9.4%(18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선박충돌, 전복, 침몰, 화재 및 안전사고를 의미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99명으로 이중 안전사고(해상추락, 목격자 없는 실종, 어구에 의한 신체가격 등)로 인한 인명피해는 68명(68.7%)이다. 그밖에 전복사고 13명, 충돌사고 6명, 침몰사고 3명, 기타사고(행방불명 2, 침수 1) 3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사망·실종자 중 외국인 선원은 27명(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안전사고는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전체 해양사고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관손상 사고의 대부분은 출항 전 점검·정비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선박종사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매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정보와 안전사고예방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선원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어(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맞춤형 교육자료를 지속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해양사고통계” 자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 해양사고통계-통계연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뉴스

# 한·중 국제여객선 3년 2개월 만에 여객운송 정상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와 지역경제에 활력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그간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3월 20일(월)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최근 양국의 입국 및 방역 정책이 완화되었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3월 20일(월)부터 한·중 여객선의 여객운송을 정상화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의 여객이 이들 항로를 이용하였다. 다만, 여객 운송 중단 3년 2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만큼,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로 실제 여객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위해, 청도, 단동, 연태, 석도, 진황도, 대련, 영구, 연운항) / 평택~(연운항, 위해, 일조, 연태, 영성) / 군산~석도

해양수산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하여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상태 점검은 물론, 선박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승무원들의 비상대응 역량, 여객 대피 유도 적정성 및 여객대상 안전교육의 내실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국에서 운송재개 시 운항 전 점검, 중국에서 운송재개 시 입항 후 즉시 점검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로 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 평택, 군산을 비롯한 항만 인근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과 소상공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10일(수)부터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간의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하였고, 지난해 10월 28(금)부터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등 간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도 정상화하여 지난해 약 19천 명의 승객들이 이들 노선을 이용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여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 협회교육안내

# 2023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23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갱신기간 도래자와 자격정지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반 운영(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20명(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사전교육 : 금500,000원 ※수영장입장료 포함  
보수교육 : 금70,000원 ※수영장입장료 미포함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신분증

###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사전교육(64시간) 수료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http://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 협회교육안내

### 2023년 『인명구조요원/강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 2023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육비 : 요원 25만원 / 강사 3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교육안내

### 2023년 『재난안전지도사』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한

#### | 2023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재난 2급 이수자로 만 18세 이상  
2급 - 재난 3급 이수자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5만원 / 2급 15만원 / 3급 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2023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한

#### | 2023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해양 2급 이수자로 만 18세 이상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5만원, 2급 15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해양안전·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교육안내

### 2023년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해양사고 발생시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생존수영 및 사고대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 수행

#### | 2023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대 상 : 2급 - 만 16세 이상, 사전평가(자유형/평영 각50m, 잠영10m) 합격자  
1급 - 2급 자격증 보유자 중 동 교육에 10시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증명사진1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20만원 (C/O 타단체 자격소유자 15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교육시작 전날 까지 100% 환불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과목
  - 생존수영지도(12시간)
  - 응급처치지도(4시간)
  - 생존수영이해(8시간)
  - 교수법(8시간)

- 자격명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생존수영지도사(2020-005567)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김성태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상기 "생존수영지도사(1급/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협회후원안내

###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 이마트 마일리지 활용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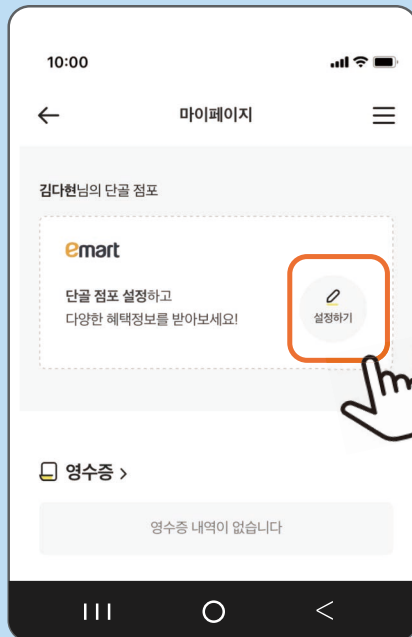
쇼핑한 금액의 0.5%를 이마트에서 적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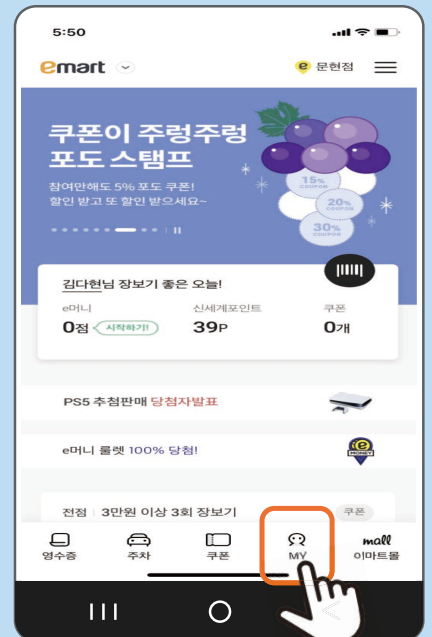
적립된 기금은 바다 안전을 지키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처우개선과 안전확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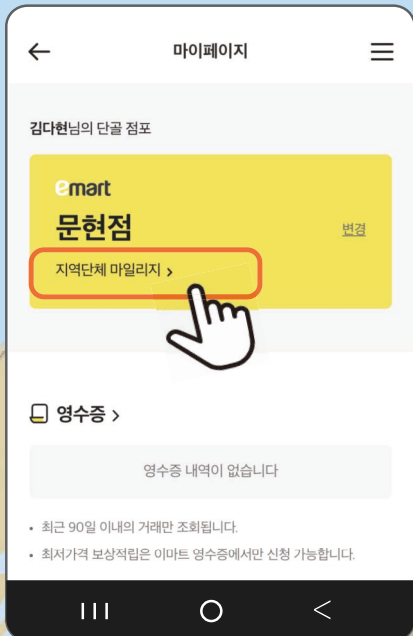
**1** 이마트 어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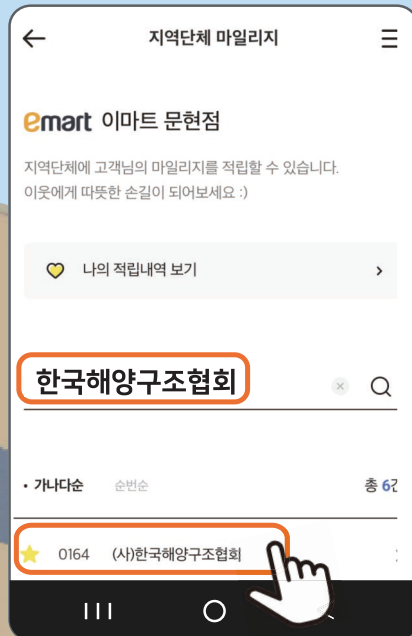
**2** 회원가입 후 단골점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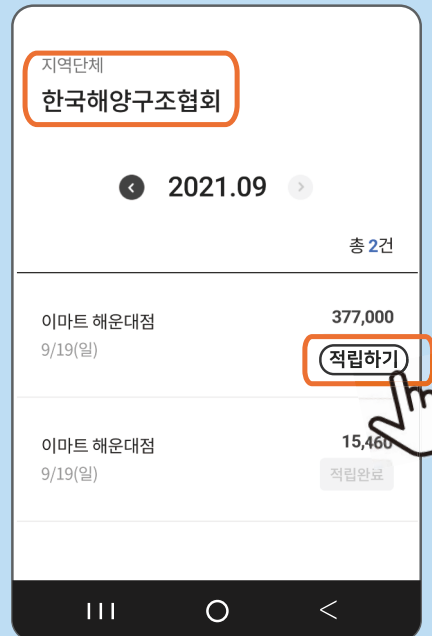
**3** 앱 화면 하단 my 클릭



**4** 지역단체마일리지 클릭



**5** 한국해양구조협회 검색  
즐거찾기 설정 후 클릭하기



**6** 적립하기 클릭  
(개별포인트 적립과 별도로 기부됩니다)

어플이 없는 경우 종이영수증을 가지고 '고객만족센터' 방문

(주)장례를 돕는 사람들  
힘든 순간 가족의 맘으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갑작스레 닥친 장례식  
.....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장례를 돕는 사람들 후불240 상품

인력

- 장례지도사  
1명\*3일 근무(장례절차 진행)
- 입관장례사  
2명2일차 입관식 진행 및 궁중대렴
- 행접객도우미 4명 8시간  
(8시간 이상 추가요금 발생)

입관용품

- 수의:면수의 100%/기계직
- 목관:오동나무 1.0치
- 유골함:화장시 오동나무유골함 제공
- 규격품 제공

차량

- 장의버스/리무진 중 택1(200Km 제공)
- 엠블런스:관내 무료

상복

- 현대식-남자:직계제공
- 현대식-여자:직계제공

서비스

- 입관꽃장식:제공
- 헌화:30송이
- 빈소용품:규격품 제공



사전상담혜택:장례식장 빈소 사용료:무료~50%할인(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음) \*전국 행사 가능\*  
수의 준비시 (꽃관보, 도우미 1명, 10만원 현금 지원 중 택1)  
별도금액:장례식장 사용료, 음식값, 재단꽃  
차량기본 200Km 제공 (1Km 추가시 1,800원 추가)



(주)장례를 돕는 사람들



임종시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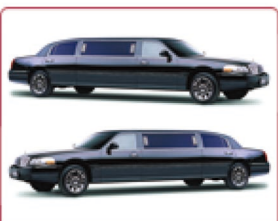
1522-8099



도우미



장례지도사(3일)



리무진



수 의



상 복